

팔괘의 상·성(象·性)을 적용한 춤사위 개발 연구*

배진일**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제언 |
| II. 팔괘(八卦)의 개념과 형성배경 | 참고문헌 |
| III. 팔괘의 상(象)의 구조와 성(性)의 특징 | Abstract |
| IV. 팔괘의 상(象)과 성(性)의 특징을 적용한 춤사위 개발 | |

I. 서론

본 연구는 『주역(周易)』의 팔괘(八卦)가 지닌 상(象)의 구조와 성(性)의 특징을 적용한 춤사위를 개발함으로써 동양사상을 기반으로 한 춤사위를 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양사상의 음과 양이 지닌 ‘상반상성(相反相成)’의 현상을 모티브로 개발한 춤사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리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통합적 사유방식을 시각화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현대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은 그 변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각화시키는 양상을 보이며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정신과 물질, 나와 타인 등의 관계를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간주하는 현대사회의 병폐로써 물질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동양사상의 중요성을 각인시킨다. 특히 『주역』은 동양사상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서 세계는 ‘음(陰)’과 ‘양(陽)’의 작용으로 구성되며 ‘상반상성(相反相成)’의 관계를 통해 세계를 통합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 즉, 상반된 물성으로 인식되는 음과 양은 태극인 원형이 변화하여 드러나는 현상으로 동질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과 사물의 원형성과 변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순환적 관계성을 동양사상의 고전(古傳)인 『주역』의 전일론적 관점에서 통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춤사위를 개발하여 동양사상을 내재한 한국 창작춤의 움직임을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주역』은 만물이 지닌 본래적인 이치와 생성·변화의 원리를 내포한 동양 최고(最古)의 사상으로 하늘

* 본 논문은 2019학년도 배진일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초빙교수, erotation@naver.com

과 땅의 변화를 알면 인간과 우주만물의 변화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사유한다. 그 변화와 생성의 중심에는 하나(태극)에서 둘(음·양)로, 둘에서 넷(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다시 여덟(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에서 64로 분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체(一體)인 우주는 상대성을 지닌 음과 양의 역동적인 운동성으로 인해 변화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사상을 팔괘라는 상징기호체계로 구축하였다. 팔괘는 우주의 현상과 이치를 함축한 8개의 상(象)인 건(乾-하늘)·감(坎-물)·간(艮-산)·진(震-번개)·손(巽-바람)·이(離-불)·곤(坤-땅)·태(兌-연못)로 구성되며, 자연의 현상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 동물, 인간의 신체와 마음 등 그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비유되는 상징기호이다. 이러한 기호는 음과 양의 수렴과 확산을 통해 끊임없는 유전성, 유기적인 관계성, 연속적인 순환성의 특징을 지니며 우주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인간의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만물생성의 원형성, 변역성, 순환성의 의미를 팔괘의 상·성을 적용한 움직임에 내재시켜 철학적 사상과 형식적 타당성을 갖춘 춤사위를 개발하기 위하여 주역의 문헌자료와 시청각자료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주역』을 기술한 원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등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개괄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계사전(繫辭傳)』과 『설괘전(說卦傳)』을 중심으로 팔괘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둘째, 팔괘가 지닌 상과 성의 상징적 구조와 특질을 분석하고 이를 춤사위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진, 그림,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검토해봄으로써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팔괘의 상징적 이미지, 음양의 작용성과 에너지의 특질을 적용한 15가지의 춤사위를 개발하였다. 음양의 작용성을 기반으로 개발한 5가지 ‘인운의 춤사위’는 물질의 원형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의 현상을 움직임에 적용하였다. 또한 「설괘전」에 드러난 팔괘의 상(象)·성(性)인 구조와 특질을 적용하여 개발한 10가지 ‘팔괘의 춤사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의 창작 작품 구성을 위한 기반 연구로서 주역이론을 해석하고 동작을 개발하며, 명명하는데 있어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팔괘(八卦)의 개념과 형성배경

1. 팔괘의 개념

『주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주희(朱熹)가 ‘역경(易經)’이라고 명명한 이래로 유교의 오경인 『역경(易經)』, 『서경(書經)』, 『시경(詩經)』, 『예기(禮記)』, 『춘추(春秋)』 중 하나이다. 또한 주(周) 나라 때 완성되었으며, 두루 변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곧 우주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생성되며 반복, 순환한다는 핵심이론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도(道)와 연관시켜 사유하는 형식을 기반으로 하며 ‘팔괘(八卦)’라는 상징기호로 체계화시켰다.

팔괘(八卦)는 고대 중국의 전설 속에 왕인 복희씨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방안으로 창안

한 기호체계이다. 괘(卦)는 ‘걸어두다’라는 한자의 뜻을 담고 있으며 자연의 현상을 근본으로 비슷한 속성끼리 모으는 유질동상(類質同像)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물상, 인간의 관계, 신체의 부위, 동물의 성향, 방위 등 그 성질에 따라 특정 괘로 함축시킨다. 그러므로 괘에 비유된 동질의 형상을 통해 각각의 괘가 지닌 상·성(象·性)을 유추하고 그 작용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팔괘는 건(乾)·태(兌)·이(離)·진(震)·곤(坤)·간(艮)·감(坎)·손(巽)의 여덟 가지 자연현상을 기호로 형상화하여 만물의 이치를 걸어 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우주와 인간의 변화하고 생성되는 유기적인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속성이 비슷한 현상을 하나의 상(象)에 상징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우주와 인생의 문제를 설명¹⁾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이치를 인간이 본받아야 할 도의 지표로 제시함으로써 조화로운 삶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팔괘에 내재되어 있는 주역의 조화로운 땅과 하늘을 의미하는 음양의 조화에 있다. 양은 강(剛)의 성질을 지닌 굳센 하늘을 상징하고, 음은 유(柔)의 성질을 지닌 부드러운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물은 각각이 지닌 본체의 성질이 있으며 음양을 함축한 정도에 따라 사상(四象), 팔괘로 분화되어 사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드러내는데 그 모체는 태극이 된다.

태극에 대하여 중국 송대의 주렴계(周濂溪, 1017년-1073년)는 무극이 곧 태극이라고 하며, 태극의 무한한 측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태극이 만물임을 강조한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의 무극은 비롯 무한한 하나의 획을 이루지만 곧, 분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양 끝점을 설정하여 유시유종(有始有終)을 지닌 유극인 태극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태극은 음양인 양의를 내포하며 일생이법(一生二法)의 원칙을 드러낸다. 이러한 일생이법에 의하여 태극에서 음양으로, 사상으로, 그리고 팔괘로 분화되어 만물의 형체를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음양은 서로 대립적이면서 의존하는 불가분의 관계로 만물을 활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팔괘의 구조를 이루고 형체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춤사위를 개발하는데 있어 음과 양의 특징은 움직임의 특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 팔괘의 형성배경

팔괘의 구조적 특징과 의미는 그 성립 배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관계 맺는 하늘, 땅, 산, 물, 동물 등의 변화와 그 조짐 등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였다. 전국시대 초기에 팔괘는 64괘의 해석을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주역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증추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²⁾

팔괘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인 하늘, 땅, 만물,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이치를 상징적인 상(象)에 담아 드러내었으므로 역의 이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의 형성과정은 세 단계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고대중국의 전설적인 왕으로 알려진 복희씨가 문자가 없는 시대에 의사소통을 위해 그린 그림인 괘를 통해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는 획역과 문자 시대 이후 주나라 때 괘에 설명을 단 문왕과 효에 설명을 단 주공의 작업, 그리고 공자가 여기에 10가지 해설을 덧붙여 완성한 십익(十翼)으로 발전해 왔다. 오랜 시간동안 상징적인 그림인 효와 괘에 해설과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발전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삶속에서 역의 이치가 관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

1) 정병석(2012), 『주역』 상(象)의 실천적 성격 -牟宗三의 관점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70(4), p.117.

2) 박재술(1998), 『주역』 괘효의 성립과 그 의미 변화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21(1), p.248.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역의 사상을 함축한 팔괘의 형성에 대하여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넷이 되고 다시 팔괘가 되는데 이는 만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공자는 「계사전」 제1장에서 ‘강유는 서로 마찰하고, 팔괘는 서로 섞인다’라고 설명하였다.

태극이 나누어지면 양의가 세워진다. 양은 아래로 음과 교역하고 음은 위로 양과 교역하여 사상이 생겨난다. 양은 음과 교역하고 음은 양과 교역하여 하늘의 사상을 생하고, 강은 유와 교역하고 유는 강과 교역하여 땅의 사상을 생한다. 그리하여 팔괘가 이루어진다. 팔괘가 서로 섞인 후에 만물이 생한다.³⁾

팔괘의 형성과정을 음양생장의 관점에서 해석한 주희는 「역학계몽」에서 만유는 음양생장의 괘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곧, 분화와 변화는 음양의 작용성에 의한 것이며 하나의 형질은 분화된 물성에도 내재한다는 것이다.

진괘는 처음 음과 교역하여 양이 생겨나고, 손괘는 처음 양이 사라지고 음이 생겨난다. 태괘는 양이 자라나고 간괘는 음이 자라난다. 진괘와 태괘는 하늘에서 음이고 손괘와 간괘는 땅에서 양이다. 그러므로 진괘와 태괘는 위가 음이고 아래가 양이며, 손괘와 간괘는 위가 양이고 아래가 음이다. 하늘은 처음 생하는 것으로 말하므로 음이 위이고 양이 아래이니 교접한다는 뜻이다. 땅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말하므로 양이 위이고 음이 아래이니 낮은 자리이다. 건 곤이 상하에 자리를 정하고, 감리는 좌우의 문에 펼쳐져 있으니, 하늘과 땅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요, 일월이 출입하고, 춘하추동이 있고, 그믐과 초하루, 반월과 보름이 있고, 주야의 길고 짧음이 있고 행도의 남음과 모자람이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음이 없다.⁴⁾

이러한 팔괘는 음양의 작용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를 드러내고 있으나, 그 구조를 통해 우주만물의 근원인 변화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상징적 매개체이다. 또한 자연의 현상을 비추어 인간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의 큰 틀 속에서 통합적인 사유를 전개시켜 나아간다.

III. 팔괘의 상(象)의 구조와 성(性)의 특징

1. 팔괘의 상(象)의 구조

상(象)의 어원은 갑골문에서부터 연유한 것으로 코끼리를 지칭한다. 주역은 괘(卦)·효(爻)등의 부호를 써서 자연의 변화와 인간사의 길흉을 상징⁵⁾으로 드러내는 철학으로써, 주역에서 의미하는 상은 실체를 정확하게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지닌 특징을 도출하여 가시적으로 표시한 기호로써의 상(象)이다.

3) 주희(연도미상), 『역학계몽: 주희 도서역의 해설』, 김상섭(역)(서울: 예문서원, 1994), p.116.

4) 앞의 책, pp.136-137.

5) 김승동(1998), 『역사상사전』(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p.454.

『주역』 「계사전」 상 7장에는 “상(象)이란 성인이 객관사물의 번잡한 현상을 관찰하여 그 형상을 모방하고 사물의 본질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상(象)이라고 했다.”⁶⁾라는 구절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입상이진, 관물취상(立象以盡意 觀物取象)”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올려다 바라보고 내려다 살펴보며 가까이에서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서는 사물에서 상을 취한다는 것이다.

『주역』에서 상의 구조적 특징은 ‘- -’과 ‘—’을 응용한 384개의 효(爻)⁷⁾와 64개의 괘로 구성되어 있는 괘효상(卦爻象)의 부호체계, 괘효의 아래에 붙어있는 괘효사(卦爻辭) 및 초(初), 상(上), 구(九)와 육(六)⁸⁾ 등으로 구성된 효제(爻題) 등의 독특한 상징체계의 결합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⁹⁾ 특히, 팔괘의 구조는 의미를 수반한 형태로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괘는 세 개의 가로획인 삼효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는 음효와 양효로 구성된다. 즉 괘는 음효와 양효의 대립하는 두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괘의 구조 속에서 음효와 양효가 위치한 자리에 따라 팔괘의 형상과 표현적 특징이 구분되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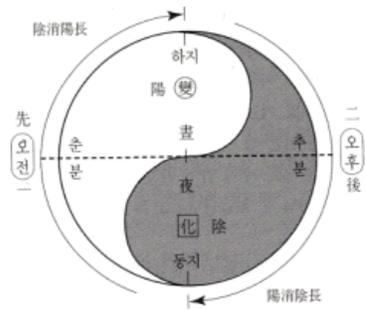


〈그림 1〉 괘의 구조적 의미

김석진은 『대산주역』강의1에서 괘를 구성하는 삼효의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하여 〈그림 1〉과 같이 설명한다. 삼효는 세 개의 가로획이 중첩되어 있으며, 공간상으로 하늘은 위, 땅은 중간, 사람은 아래에 위치하며, 시간상으로 먼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며 마지막에 사람이 형성되는 괘의 구조를 설명한다. 이와 같이 삼효는 수평방향으로 각각의 독립공간을 지니고 있지만 이 세 개의 독립된 가로획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통찰해야만 괘를 결정

하는 음효와 양효의 관계성과 작용성은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음과 양의 관계성에 대하여 『주역』 「계사전」 상에서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로 설명하며 음과 양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만물의 생화(生化)를 언급한다.

〈그림 2〉¹⁰⁾에 나타난 ‘일음일양지위도’의 도식은 주역의 근본적인 이치를 설명하기 위한 운동법칙으로 해석되는데 교차로 드러나는 음과 양은 도의 상징이며 춤사위를 개발하는데 있어 에너지의 법칙으로 적용된다. 이 도식은 밤과 낮으로 구성된 하루의 시간과 봄·여름·가을·겨울로 구성된 1년의 시간 속에서 음과 양의 작용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음은 하지에서부터 에너지가 확장되기 시작하여 추분을 거쳐 동지에서 에너지가 최대 확장되며 점차적으로 축소된다. 반면, 양은 동지에서부터 에너지가 확장되기 시작하여 춘분을 거쳐 하지에서 에너지가 최대 확장되며 추분에서 점차적으로 축소된다. 이는 음과 양의 상대적이면서도



〈그림 2〉 일음일양지위도 도식

6) 풍우란(1989), 『중국철학사-상』, 박성규(역)(서울: 까치, 1999), p.618.

7) 괘를 구성하는 기본 부호로서 가로획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연결된 가로획(—)은 양효로, 갈라진 가로획(- -)은 음효로 구분된다.

8) 64괘에서 사용되는 괘는 6효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의 자리에 따라서 초효와 상효 등으로 구분되며, 음양의 성질에 따라서 구효와 육효 등으로 구분된다.

9) 정병석(2008), 『周易』과 『易象』, 『유교사상문화연구』 32, p.253.

10) 김석진(1999), 『대산 주역강의1-상경』(파주: 한길사), p.67.

상보적인 관계성과 작용성을 드러낸 도식으로서 이러한 관계는 괘의 구조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된다. 괘를 이루는 음효와 양효가 양립구조, 중첩구조를 형성하면서 외적으로는 분리된 형태로 드러나지만 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을 지님으로써 통합적 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지닌 팔괘는 괘상과 괘명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괘명과 괘상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하늘을 상징하는 건괘(乾, ☰)는 삼효가 모두 양효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의 특질을 중첩시킴으로써 양기가 강한 하늘을 기호로서 표시한다. 산을 상징하는 간괘(艮, ☶)는 초효와 중효는 음효로, 상효는 양효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음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작용성으로 인하여 고요함을 함축하게 된다. 물을 상징하는 감괘(坎, ☵)는 초효와 상효는 음효로, 중효는 양효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에는 분출의 에너지를, 밖으로는 수축의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응축된 에너지를 수반한 채 진출하는 물을 상징하는 기호이다. 번개를 상징하는 진괘(震, ☳)는 초효는 양효로, 중효와 상효는 음효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무겁게 누르는 에너지를 아래의 분출하려는 에너지가 뚫고 나아가는 형태를 드러내며 번개 또는 새싹을 상징한다. 바람을 상징하는 손괘(巽, ☴)는 초효는 음효로, 중효와 상효는 양효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승하고 흩어지는 에너지가 강하므로 바람을 상징하는 기호로 형상화 된다. 불을 상징하는 이괘(離, ☲)는 초효와 상효는 양효로, 중효는 음효로 구성되어 있으며 밖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를 중간에서 끌어당기는 특징을 지닌다. 땅을 상징하는 곤괘(坤, ☷)는 삼효가 모두 음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강한 하강과 수축의 에너지를 수반하고 있다. 연못을 상징하는 태괘(兌, ☱)는 초효와 중효는 양효로, 상효는 음효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양효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반면 위의 음효가 하강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분출하지 못하고 응축되어 있는 연못의 형태를 상징하게 된다. 이와 같이 팔괘의 괘상은 음과 양의 혼합형태로 구성된 기호이며 괘 안에서 음과 양이 위치한 자리에 따라 상관관계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주역의 상은 단순한 형태의 모방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내재한 심오한 도식으로서 상의 의미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 팔괘의 성(性)의 특징

성(性)이란 일반적으로 하늘이 주는 고유한 물(物)의 본질, 특성 또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닌 소질을 의미¹¹⁾하는 것으로 팔괘의 ‘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해석은 『주역』 「설괘전」의 7장, 8장, 9장, 10장에서 언급된다. 이 부분에서는 우주만물 중 비슷한 형질을 취하여 상을 묘사한 팔괘취상설로 ‘괘성’을 설명한다.

하나의 괘상은 외형적인 구조와 별도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괘상에 함축되어 있는 성질에 따라 동물, 사람의 신체부위, 가족의 관계 등에 적용되어 그 어떤 기호보다도 다양한 부분에서 해석된다. 건은 하늘로 굳건함이고, 말이며, 머리이고, 아버지로 상징되며 곤은 땅으로 온순함이며, 소이고 배이며, 어머니를 상징한다. 진은 우뢰로 움직이고, 용이고 밭이며, 장남이다. 손은 바람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닭이고 다리이며 장녀이다. 감은 빠지는 특질을 지녔으며, 돼지이고 귀이며 중남이다. 이는 연결이고, 꿩이며, 눈이고, 중녀이다. 간은 산이고, 멍춤이며 개이고, 손이며 소남이다. 태는 연못으로 기쁨이고 양이며, 입이고, 소녀를 상징한다.

11) 김승동(1998), p.500.

공영달(孔穎達, 574년-648년)은 팔괘의 성에 대하여 ‘건’은 끊임없이 돌아가며, 그 때문에 강하다. ‘곤’은 하늘의 작용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진’은 모든 것을 자극하고 움직인다. ‘손’은 어느 곳이나 들어가며, ‘감’은 잠김 속에 있다. ‘이’는 모든 사물을 포괄하며 그것에 결부된다. 또한 ‘간’은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며 나아감을 저지한다. ‘태’는 습지를 주며 그를 통하여 기뻐한다.¹²⁾로 팔괘가 지닌 각각의 특성을 정리한다.

또한 이성환·김기현의 저서 『주역의 과학과 도(道)』에서는 팔괘의 성을 상의 구조적 특징과 연관시켜 에너지의 작용성으로 설명한다. 괘를 구성하는 음효의 형체(--)는 갈라져 있는 땅을 형상화 한 기호이며, 반면 양효의 형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늘을 형상화 한 기호이다.¹³⁾ 즉, 음의 작용 에너지는 안으로 끌어당겨서 응축시키고 단단하며 아래로 향하며 무거운 특징을 지니는 반면 양의 작용 에너지는 밖으로 밀어내며 흩어지고 위로 향하며 가벼운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음과 양은 팔괘의 구조 안에서 역동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수렴하며 괘의 특질을 형성한다.

이를 토대로 팔괘의 특질을 살펴보면 건괘는 삼효 모두 양효로 구성되어 있고 하늘을 상징하는 괘이다. 양은 우주 공간상 위에 위치하며 움직임이 활발하고 빠른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삼효 모두 양의 성질로 채워진 건괘는 위로 상승하는 에너지와 팽창운동성을 함축한다. 곤괘는 삼효 모두 음효로 구성되어 있고 땅을 상징하는 괘이다. 음은 공간상 아래에 위치하며 움직임 느리고 무거운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삼효 모두 음으로 채워진 곤괘는 하강하는 에너지와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음효로서 물체를 끌어당기고 수축하는 에너지를 수반한다. 건과 곤괘는 순양과 순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음과 양이 혼합된 구조로 주효에 따라 에너지의 특질이 변화한다. 태괘에서 상호는 비어있는 음효이고 중간과 아래가 막힌 양효로서 위의 음효는 안으로 끌어 모아 응축하고 아래 두 개의 양효는 팽창하며 밀어 올리는 에너지를 함축한다. 연못을 상징하는 태괘는 수축과 팽창의 에너지가 서로 상충하면서도 발산되지 않는 고요한 특질을 내재하고 있다. 간괘는 상호는 양, 중·하효는 음이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나 위가 막힌 있어 찌그러진다. 음의 두 기둥이 양을 받치고 있어 산의 고요함, 굳건함을 특징을 지닌다. 또한 진괘는 상호와 중효가 음이고 하효가 양이다. 번개 형상이며 동적인 작용성으로 위의 두 음 사이로 뚫고 나오려고 꿈틀거리는 움직임의 특징을 가진다. 손괘는 한 개의 음이 하효자리에 위치하므로 끌어당기는 작용성이 약하다. 상·중효 자리에 위치한 두 양괘는 음의 영향을 적게 받고 활발하게 흩어지며 수평으로 부는 바람 형상을 상징한다. 이괘는 상호와 하효가 양이고 속에 해당하는 중효가 음이다. 밖의 양은 팽창하고 있고 속의 음은 미약하나마 팽창하는 양들의 작용을 흡입하여 붙들고 있으며 안은 어둡고 밖은 밝은 태양, 불을 연상할 수 있다. 감괘는 밖의 두효가 음이고 중효가 양이다. 음이 위 아래로 에너지를 흡인하고 속은 양이 있어 미약하나마 팽창하고 있는 형상으로 물의 형체가 겹은 퍼져있으나 물이 많아지면 힘이 팽창하는 것과 같이 무한한 에너지를 갖는다. 괘의 구조에 따른 에너지의 작용성과 특징은 다음 <표 1>¹⁴⁾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 알프레도 포르케(1927), 『중국고대철학사』, 양재혁, 최해숙(역)(서울: 소명, 2004), p.64.

13) 이성환, 김기현(2002), 『주역의 과학과 道』(서울: 정신세계사), pp.394-395.

14) 이성환 외(2002).

〈표 1〉 팔괘의 에너지 작용성

괘명	괘상	작용성	효 구성	괘명	괘상	작용성	효 구성
건(하늘)		팽창 에너지	삼효-양	진(번개)		진출·발산 에너지	상·중효-음 하효-양
곤(땅)		수축, 흡입 에너지	삼효-음	손(바람)		이산 에너지	상·중효-양 하효-음
태(연못)		하층 에너지 수렴·흡입	상효-음 중·하효-양 고요함	이(불)		수렴과 발산 에너지	상·하효-양 중효-음
간(산)		상층 에너지 흡입	상효-양 중·하효-음	감(물)		무한한 에너지	상·하효-음 중효-양

이러한 특성을 지닌 팔괘와 춤의 관계는 김미영¹⁵⁾과 이철진¹⁶⁾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김미영은 당악 정재(唐樂呈才)의 춤 절차에 나타난 규칙성과 악학궤범 권1에 제시되어 있는 사상적 체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악무의 의식이나 형상은 음양의 조화로 귀결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육화대〉와 〈성택〉의 초입배열도에 도해되어 있는 팔괘를 천간, 지지와 연관하여 각각의 춤 절차의 내재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한 이철진은 살풀이춤의 원리와 사상을 주역의 대동적 몸관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제를 팔괘로 보고 팔괘에 따라 살풀이춤의 움직임 특징을 분석하였다. 팔괘를 인체의 움직임 형태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효를 파악하고 중효를 움직임의 근원으로 설정하였으며, 효의 특징으로 굴신과 호흡, 강약 등 질적 부분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팔괘의 구조와 의미의 해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와 에너지를 동반한 춤사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V. 팔괘의 상(象)과 성(性)의 특징을 적용한 춤사위 개발

팔괘의 상과 성에 기반으로 새롭게 구성한 인운의 춤사위는 주역의 ‘일음일양지위도’의 운동원리를 근거로 하나의 움직임 안에 두 가지 성질을 내포한 채 일어나는 인운의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팔괘의 춤사위는 각각의 괘가 지닌 특질과 도상학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형상하였다.

1. 인운(緼縕)의 춤사위

인운(緼縕)은 역사상사전에서 만물이 음양과 같이 상반된 두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하고 영기는 것으로 설명하며, 『주역』 「계사전(繫辭傳)」 하에 “천지의 기운이 화합하여 만물이 생기고, 남녀 정기(精氣)를 합하여 만물이 자라난다(天地緼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¹⁷⁾는 문장으로 설명하였다.

15) 김미영(2009), 『악학궤범(樂學軌範)』 당악정재(唐樂呈才)의 규칙성과 사상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6) 이철진(2006),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한 해석: 周易八卦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7) 김승동(1998), pp.892-893.

‘인온의 춤사위’는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하는 과정을 내재한 춤사위로 이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공통적으로 지닌 원형적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총 5가지로 구성되었다. 움직임의 특질은 한 개의 동작 프레임즈 안에 강함과 부드러움, 빠름과 느림,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와 지속적인 흐름 등 상반되는 특질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동질이상의 특성을 구체화시켰다.

가. 인온의 춤사위 1

‘인온의 춤사위 1’은 분화이전의 일렁이는 모습을 낮은 자세에서 몸체의 원형으로 이용하여 구성된 춤사위이다.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엷드린 상태에서 호흡의 소장에 따라 몸체 전체가 상하, 좌우로 팽창하고 수축하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큰 호흡으로 양팔을 위로 밀어 올려 솟구치는 변화와 서서히 바닥으로 가리앉으며 지속적인 팽창과 수축이 곡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특징을 <표 2>와 같이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2> 인온의 춤사위 1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인온의 춤사위 1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 분화 이전의 일체성 표현 - 일음일양 에너지 소장에 따른 수축과 팽창의 움직임

나. 인온의 춤사위 2

‘인온의 춤사위 2’는 일음일양의 모습을 형상화 한 춤사위로 작고 크며 빠르고 느린 움직임, 어긋남의 방향성을 움직임의 특질로 하여 극성의 두 요소가 대립하면서도 공존하는 이미지를 드러내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무릎을 세우고 완전히 일어서는 듯 하다가 다시 아래로 향하는 끊임없는 에너지의 흐름을 이용하였다. 두 요소가 한 지점에서 결합하려는 순간 극성의 성향으로 인해 엇갈리는 성질을 양 손끝의 결합과 사선방향으로 풀리는 움직임에 적용하여 춤사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에너지는 <표 3>과 같이 멈추지 않고 요동치는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춤이 지닌 정중동의 특질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춤사위로 지속적인 흐름 속에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 속에 에너지가 흐르는 미묘함을 내포하고 있다.

〈표 3〉 인온의 춤사위 2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인온의 춤사위 2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음일양의 모습을 형상화 한 춤사위 - 극성의 두 요소가 대립하면서도 공존하는 이미지를 어긋남의 방향성으로 표현

다. 인온의 춤사위 3

‘인온의 춤사위 3’은 상대적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장(場)에서 ‘융합되기’와 ‘분리되기’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부유하는 요소들을 상하좌우로 밀어내고 끌어오며 혼란스러운 혼돈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 움직임은 〈표 4〉에 나타난 에너지의 흐름처럼 상하 좌우가 곡선형태로 맞물리며 지속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 춤사위는 무릎을 구부리고 펼치며 상·하 수직 이동을 하는 동시에 양발의 중심을 갈지(之)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좌·우 수평 이동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체는 하체의 이동에 따라 연결되는 흐름을 지니며 양팔은 펼친 상태에서 사방의 에너지를 밀고 당기는 에너지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우주의 질서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표 4〉 인온의 춤사위 3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인온의 춤사위 3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습 형상화 - 상하좌우로 밀어내고 끌어오는 움직임으로 혼돈의 이미지 표현

라. 인온의 춤사위 4

‘인온의 춤사위 4’는 음·양으로 상징되는 만물의 이중적인 성질을 수직과 수평의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형상화 한 것으로 수평과 수직 그리고 원형의 움직임을 한 동작구에 구성하였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수평상태로 펼친 양팔은 이어 한쪽 방향에서 겹쳐지고 다시 분리되어 얼굴 앞과 단전 앞에 놓는다.

순간 빠른 템포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양팔은 가슴 앞에서 결합하는 듯 하다가 분리되어 양 손끝이 상하 수직선을 이룬다. 이 움직임은 <표 5>와 같이 만물의 이중적 속성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수평과 수직으로 흐르는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인온의 춤사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결합과 분리의 미묘한 경계선은 만물이 지닌 동질이상의 속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수직을 이룬 양 팔은 몸체의 회전을 따라 큰 원을 그리며 하나로 합치되고, 서로를 넘나드는 극성의 요소는 결국 하나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5> 인온의 춤사위 4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인온의 춤사위 4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양으로 상징되는 만물의 이중적인 이미지 - 수직과 수평의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형상화

마. 인온의 춤사위 5

‘인온의 춤사위 5’는 동질이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춤사위로서 인온은 두 극성을 모두 끌어안은 상태에서 펼쳐짐과 구부러짐, 커짐과 작아짐, 직선과 곡선 등 상반되는 움직임의 형태를 끊임없이 드러낸다. 전체 몸체의 움직임은 상하좌우의 방향성을 가지고 공간에 무한대를 그리는 형상으로 <표 6>과 같이 뻗출 듯 이어지고 흩어질 듯 화합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구성하였다.

<표 6> 인온의 춤사위 5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인온의 춤사위 5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극성을 모두 끌어안은 인온의 상태를 형상화 - 펼쳐짐과 구부러짐, 커짐과 작아짐, 직선적임과 곡선적임 등 상반되는 움직임의 형태 표현

2. 팔괘(八卦)의 춤사위

‘팔괘의 춤사위’는 주역의 「설괘전」에 근거하여 괘가 지닌 각각의 작용성과 그로 인해 규정되는 속성 그리고 괘가 상징하는 외형적인 이미지를 적용하여 구성한 춤사위이다. 이 춤사위는 하늘, 물, 산, 번개, 바람, 불, 땅, 연못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으며 물상이 지닌 에너지를 동작의 특질로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한 10가지 팔괘의 춤사위는 만물의 현상과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상징체로서 그 의미를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가. 건의 춤사위 1

‘건의 춤사위 1’은 건괘의 특징을 적용하여 구성된 움직임으로 삼효가 모두 양효로 구성되어 있어서 응집력이 약하지만 밝고 위로 상승하는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움직임이 활발한 특징을 가지며 하늘을 상징한다. 이러한 특성을 적용한 건의 춤사위1은 하체의 낮은 중심보다는 위로 상승하고 상체를 위의 방향으로 밀어 올려주는 움직임으로 구성하였다. 무릎을 굽신한 상태에서 양팔을 가슴 앞에서 모아 하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동시에 양팔도 하늘을 향해 모아 올린 후 좌우로 펼쳐 내린다. <표 7>과 같이 상승된 에너지는 둥근 하늘을 상징하듯 두 팔로 큰 원형을 만들어 회전한다. 이는 위로 상승하며 가볍고 밝은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하체의 오금을 견고하게 사용하지 않고 주로 상체의 열린 움직임을 활용하였다.

<표 7> 건의 춤사위 1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p>건의 춤사위 1</p>	
<p>특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승하며 열린 이미지 - 열린 특징을 동작에 적용하기 위하여 양팔을 위로 밀어 올리는 움직임으로 형상화

나. 건의 춤사위 2

‘건의 춤사위 2’는 삼효가 모두 양효로 구성되어 있는 건괘의 두 번째 춤사위는 상승하고 흩어지는 열린 특징을 동작에 적용하기 위하여 양팔을 펼쳐 미는 움직임과 에너지의 흐름으로 <표 8>과 같이 구성하였다. 사선 아래에 위치한 한 팔은 무게 중심의 이동에 따라 중심쪽 사선으로 한 팔을 끝까지 밀어 올리며, 상승하며 열린 에너지는 하강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다 회전한다. 하체의 뒷 중심에서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았다 양 옆으로 다시 펼치는 움직임을 통해 흩어지고 열리는 건의 특질을 표현하였다.

〈표 8〉 건의 춤사위 2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건의 춤사위 2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승하며 열린 이미지 - 열린 특징을 동작에 적용하기 위하여 양팔을 위로 밀어 올리는 움직임으로 형상화

다. 감의 춤사위

‘감의 춤사위’는 밖의 두 효가 음이고 안의 한 효가 양으로 음은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고 양은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로 인해 불안하며 조화롭지 못한 특질을 지닌 께이다. 밖은 강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끊임없이 자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으로 고정된 형체가 없는 물로 상징된다. 전신을 하나의 물결로 형상화하여 발바닥에서부터 무릎, 골반, 가슴, 머리와 동시에 등에서부터 시작되는 양팔의 끝지점까지 곡선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표 9〉와 같이 순차적으로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정점에서 다시 하강시키며 끊임없이 작용하는 감의 춤사위를 구성하였다. 선의 부드러운 흐름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단전은 강하게 긴장시켜 상승과 하강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반면 상체는 곡선을 유지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특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드럽게 연결되는 움직임 사이에 급작스럽고 강한 에너지와 템포의 변화를 활용하였다. 하체의 굴신은 무거우면서도 빠르고 양팔은 잔잔한 물결과 심연에서부터 솟구치는 파도의 움직임을 교차적으로 표현하여 마치 연속하는 물결의 파장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9〉 감의 춤사위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감의 춤사위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작용하는 물의 이미지 - 전신을 하나의 물결로 형상화하여 곡선의 형태로 형상화

라. 간의 춤사위

‘간의 춤사위’는 아래 두 개의 음과 위에 하나의 양으로 구성된 간괘로서 고요하고 굳건하게 산을 상징하는 움직임이다. 위의 강한 양이 아래 두 음을 막고 있으며 두 음은 위의 양을 흡입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막혀 있어 정지된 형상을 표현하였다. 하강과 무거움, 굳건함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주로 하체는 낮은 굴신상태를 유지하였고 이동시 오금을 구부린 상태에서 느린 템포를 사용하였다. <표 10>과 같이 한 팔을 위로 들어 올린 후 머리위에서 내리누르는 동작을 통해 상승되는 에너지를 내리누르는 묵직함을 움직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다른 한 팔은 팔꿈치를 구부린 채 각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산의 형태를 도상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표 10> 간의 춤사위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간의 춤사위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혀 있어 정지된 형상인 산의 이미지 - 팔을 위로 올린 후 머리위에서 내리누르는 동작으로 산의 형태를 도상학적으로 형상화

마. 진의 춤사위

‘진의 춤사위’는 아래 하나의 양이 위의 열려있는 두 개의 음 사이를 뚫고 나오려는 형상을 지닌 괘로써 번개, 천둥, 지진 뿐 아니라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을 상징한다. 아래 하나의 양이 작용의 중심에 놓이면서 진은 동적인 성향을 내포한다. 뚫고 나오는 이미지에 착안하여 낮고 무겁고 느린 속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높고 가볍고 빠른 움직임으로 변화시켜 진의 특질을 움직임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뚫는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미지로 요동, 진동을 움직임 특질에 첨가하였다. <표 11>과 같이 단전 앞에 모은 손으로 갈지(之)자를 그리며 가슴 앞까지 상승시킨 후 하체에서부터 상승시킨 에너지를 이용해 한 손끝을 완전히 펴서 머리 위 정점까지 요동치 듯 밀어 올린다. 위를 향해 뚫고 올라간 팔을 다시 내려 빠르게 회전하는 동시에 가슴 앞에서 두 손끝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움직임을 구성하여 강하고 직선적이며 빠르고 요동치는 움직임 특질을 구현하였다.

〈표 11〉 진의 춤사위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진의 춤사위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를 뚫고 나오려는 번개, 새싹의 이미지 - 위를 향해 요동치며 뚫고 올라가는 팔의 움직임으로 형상화

바. 손의 춤사위

‘손의 춤사위’에서 손은 아래의 음과 중간, 위가 양으로 구성된 꽤로 자유롭고 부드러운 바람을 상징한다. 두 개의 양효로 인해 자유롭게 상승할 수 있는 순조로운 작용성을 지닌다. 〈표 12〉와 같이 자유롭고 순조로운 특질을 지닌 바람을 드러내기 위하여 움직임의 결을 급작스럽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에너지의 흐름에 따른 강약과 템포를 이용하였다. 낮은 자세에서 한 팔을 사선으로 올려 바람을 타고 날개짓 하듯 상하 곡선으로 움직이며 위로 상승시키고 잦아든 에너지는 하강시키며 한발을 중심축으로 하고 다른 한발과 양손을 사선 뒤로 밀어내며 회전한다. 이어 동일 방향으로 지속되는 회전 방향에서 두발은 모으고 상체는 양손으로 몸을 감싼 채 동작 전체가 하나의 회오리를 표상하듯 구성하였다.

〈표 12〉 손의 춤사위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손의 춤사위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부드러운 바람의 이미지 - 팔을 사선으로 올려 날개 짓 하듯 상하 곡선의 움직임으로 형상화

사. 이의 춤사위

‘이의 춤사위’에서 이래는 상하 두 양 가운데 음이 자리하고 있는 기호로 두 양은 밖으로 진출하고 가운데 음은 안으로 응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으로 조화로움을 드러낸다. 밖이 밝고 안이 어두운 양과

음으로 구성된 이괘는 불을 상징하며 이(離)는 ‘헤어지다’와 ‘연결되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한자어로 조화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다. 내부는 강하면서도 외면적으로 밝고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몸체는 상하 수직으로 양 팔은 상하좌우의 곡선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하단전을 강하게 수축 시킨 상태에서 내려앉은 후 하체를 바닥에서부터 밀어 위로 상승시키고 작은 불씨가 타올라 큰 불꽃을 이루는 형상으로 양팔은 각각 엇 방향과 템포로 몸체를 타고 곡선을 그리며 위로 상승시킨다.

〈표 13〉과 같이 작은 곡선의 에너지는 몸체의 상승과 더불어 큰 곡선과 에너지로 전환되어 하나의 불꽃을 형상화하고 이어 사그라진 듯한 움직임은 몸체와 양팔의 빠르고 강한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전환되어 화려하면서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에너지를 움직임으로 형상화하였다.

〈표 13〉 이의 춤사위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이의 춤사위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 - 양팔이 몸체를 타고 곡선을 그리며 위로 상승시키는 움직임으로 형상화

아. 곤의 춤사위 1

‘곤의 춤사위 1’은 삼효가 모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괘로 어둡고 느리며 단단한 성정을 지닌 땅을 상징한다. 어둡고 무겁고 느린 움직임의 특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움직임의 지향점을 주로 낮은 바닥으로 두었으며 낮은 하체의 굴신과 직선적인 상체 동작으로 구성하였다. 〈표 14〉와 같이 한발 중심축으로 두고 다른 발을 뒤로 돌리며 바닥으로 몸체를 누르고 양 손목을 서로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 내리서 묵직함을 표현하였다. 이 춤사위는 대지의 심연에서 에너지를 끌어 담듯 몸체를 더 낮춰 한 팔로 바닥에서부터 몸 안으로 큰 원을 그린 후 몸체를 굴러 단전 중심으로, 그리고 낮은 바닥으로 깊숙이 내려가며 무거운 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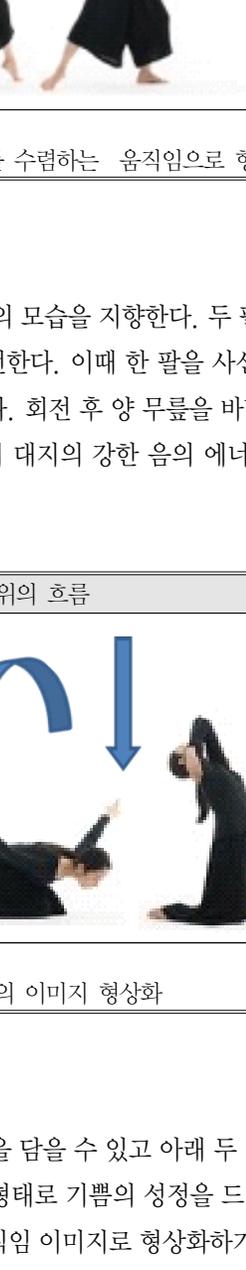
〈표 14〉 곤의 춤사위 1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곤의 춤사위 1	
특 성	- 어둡고 무겁고 땅의 이미지 - 낮은 하체 중심을 두고 몸 안으로 에너지를 수렴하는 움직임으로 형상화

자. 곤의 춤사위 2

‘곤의 춤사위 2’는 앞선 곤의 춤사위보다 더 낮은 땅의 모습을 지향한다. 두 팔을 모아 몸체와 비껴 사선을 이룬 후 하단전 중심으로 서서히 내려앉으며 회전한다. 이때 한 팔을 사선 아래 직선으로 펼쳐 누름으로써 강한 음의 에너지를 〈표 15〉와 같이 드러낸다. 회전 후 양 무릎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는 동시에 양팔을 모아 위에서 끌어내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대지의 강한 음의 에너지를 형상화하였다.

〈표 15〉 곤의 춤사위 2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곤의 춤사위 2	
특 성	- 어둡고 무거운 땅의 이미지 - 낮은 하체 중심의 내려앉는 움직임으로 땅의 이미지 형상화

차. 태의 춤사위

‘태의 춤사위’는 상호인 걸이 음으로써 갈라져서 물을 담을 수 있고 아래 두 개의 양은 위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하는 성질을 지녔으며 담아 모을 수 있는 형태로 기쁨의 성정을 드러내는 연못을 상징한다. 〈표 16〉과 같이 끌어 모으고 담아내는 태의 특질을 움직임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두 발은 모은 채 굴신하고 양팔은 연못의 수면을 어루만지듯 가슴 앞에서 수평으로 서서히 밀어낸다. 이어 물결의 일렁임을 하체의 순간적인 에너지로 밀어 올리는 동시에 양 팔은 상하의 급작스런 곡선 움직임으로 표출하

였다. 서서히 진행되던 움직임이 빠른 템포로 전환되면서 하체는 위로 밀어 올리고 양손은 물을 떠올리듯 모아 가슴 앞으로 가져온다. 이 춤사위는 무릎을 구부리고 뒷 중심을 유지한 채 상체는 뒤로, 가슴 앞에 모았던 양손은 앞 사선 위로 밀어 올리며 태괘가 지닌 특질을 춤사위를 표현하였다.

〈표 16〉 태의 춤사위의 특징

동 작	춤사위의 흐름
태의 춤사위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아 모을 수 있는 형태로 기쁨의 성정을 상징하는 못의 이미지 - 양손의 곡선을 이용하여 물을 떠올리듯 모으는 움직임으로 형상화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팔괘의 상(象)과 성(性)의 특징을 적용하여 동양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춤사위를 새롭게 개발하고 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역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춤사위로 구현하는 과정은 관념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역이 설명하는 세계 속에서 만물의 원형성과 변역성, 그리고 순환성에 대한 사상이 내재되어 있으며 팔괘 속에 함축된 음과 양의 작용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세계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팔괘의 구조와 특질에 내재된 음양의 작용성과 상징성을 분석하여 만물의 원형성으로 ‘일음일양지위도’의 도식에 적용하고, 변역성을 팔괘에 내재된 음과 양의 동태적인 운동성에 적용하여 인온의 춤사위와 팔괘의 춤사위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첫째, ‘인온의 춤사위’는 상대적이면서 상보적인 음과 양의 관계성을 ‘일음일양지위도’의 대비적 성질에서 착안하여 상반된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인온의 춤사위는 물질의 원형성을 내포한 형태로 상하좌우의 방향성, 소장(消長)의 에너지, 직선과 곡선의 형태, 빠르고 느린 속도 등 상반적인 요소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춤사위의 구성 속에서 드러났다. 또한 상승하는 에너지로 상징된 양의 움직임과 하강하는 에너지로 상징된 음의 움직임이 극대화되어 교차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순환성의 형태를 드러내었다.

둘째, ‘팔괘의 춤사위’는 개체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을 팔괘의 도상학적 형태에서 착안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건(乾)·태(兌)·이(離)·진(震)·곤(坤)·간(艮)·감(坎)·손(巽)의 현상에서 발현되는 팽창·유동·응축·발산·이산·발화·수축·수렴의 에너지는 팔괘의 도상학적 형태를 표현한 움직임 속에 함축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의 변역성을 표현하였다.

주역의 사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자연의 도(道)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며 인간의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개별 개체로서 의미를 갖는 현대사회에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는 동양사상의 이론과 춤사위 개발의 상관적 과정을 제시하고, 한국 창작춤의 움직임을 확장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그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이 동양사상을 춤사위 속에서 상징적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은 예술과 인문학을 융합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인간의 삶속에서 조화로우에 대한 관념을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융합방식으로 개발된 춤사위 연구가 다양한 무용창작 작업에서 활용되어 관념과 이미지의 접합 지점을 탐구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춤이 인간의 삶속에서 실천적인 가치를 지닌 예술매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석진(1999). 『대산 주역강의1-상경』. 파주: 한길사.
- 김승동(1998). 『역사상사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 알프레도 포르케(1927). 『중국고대철학사』. 양재혁, 최해숙(역). 서울: 소명출판사. 2004.
- 이성환, 김기현(2002). 『주역의 과학과 道』. 서울: 정신세계사.
- 주 희(연도미상). 『역학계몽: 주희 도서역의 해설』. 김상섭(역). 서울: 예문서원. 1994.
- 풍우란(1989). 『중국철학사-상』. 박성규(역). 서울: 까치. 1999.
- 김미영(2009). 『악학궤범(樂學軌範)』 당악정재(唐樂呈才)의 규칙성과 사상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재술(1998). 『周易』卦爻의 성립과 그 의미 변화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21(1): 236-256.
- 이철진(2006).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한 해석: 周易 八卦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병석(2008). 『周易』과 『易象』. 『유교사상문화연구』, 32: 251-274.
- 정병석(2012). 『주역』상(象)의 실천적 성격 -牟宗三의 관점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70(4): 107-127.

논문투고일 2019. 8. 15.
심사일 2019. 8. 20.
심사완료일 2019. 9. 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ance Movement Applying the Sang·Seong(象·性) of Eight Trigrams

Bae, Jin il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hape of dance movement based on Oriental philosophy by developing the dance Movement, while applying the structure of *Sang*(象)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ong*(性) of Eight Trigrams(八卦) of *Classic of Changes*(I Ching). To visualize it as dance move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ang*(象) and *Seong*(性) of Eight Trigrams, and fifteen dance movements were developed by applying the function of *Yin-Ya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symbolic image and energy immanent in Eight Trigrams.

Searching fo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heory of Oriental philosophy and the development of dance movement,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built dance movements with the prototypicality of Oriental thoughts and the universality of present times and studied the methodology to expand the field of dance.

Keywords: Classic of Changes(I Ching)(주역), Eight Trigrams(팔괘), *Ileum Ilyang Jiwido*(일음일양지위도), *Yin-Yang*(음양), Dance movement(춤동작)